



제목	Persia: An Archaeological Guid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Faber & Faber Limited
발행일	1976. 6. 28.
저자	Sylvia A. Matheson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58
ISBN 또는 ISSN	978-0571048885

내용 요약

이란에는 250,000여개의 무수히 많은 고고학적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원시 동굴 거주민들로부터 40,000여년 전 선사시대 정착민들을 거쳐 셀루크 왕조까지의 고고학적 유물들에 대해 출토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테헤란, 카스피연안의 마잔다란(Mazandaran)과 길란(Gilan), 아자르바이잔(Azərbaycan)과 코르데스탄(Kordestan), 키르만샤(Kirmanshah)와 루리스탄(Luristan), 쿠제스탄(Khuzestan)과 남서부 이란, 중부 이란, 쿠라산(Khurasan), 파르스(Fars), 키르만(Kirman), 발루키스탄(Baluchistan), 시스탄(Sistan) 지역의 고분과 건축 유적들과 출토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중 페르시아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곳은 이란 서남부 자그로 산맥의 루리스탄 지역으로서 이 곳의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아케메네스 왕조 이전까지 다양한 나라와 종족에 의하여 만들어진 금속기 문화를 총칭한다. 루리스탄은 예로부터 유목기마민족의 근거지였기에 청동기와 채문토기가 이 곳 유목기마민족 분묘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검 · 도끼 · 창 등의 무기, 재갈 · 말고삐 부속 · 방울 등의 차마구, 팔찌 · 혁대 · 거울 등의 장신구, 신상(神象)과 봉납품 등의 제기용구, 각종 용기 등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검의 손잡이 장식, 말고삐 등에 부착된 말, 염소, 노루, 산돼지, 새, 스프링크스 등의 동물의상이 특징적이다. 또 신상과 지모신(地母神), 반인반수상을 통해 이 문화의 바탕이 되는 종교를 엿볼 수 있다.